

제목: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씀: 사도행전 4장 8-22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 충만함을 얻은 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거지 앓은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베드로와 요한이 잡히게 되었고 그들이 재판장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때에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다고 합니까?

1. 예수가 \_\_\_\_\_이시기 때문입니다. (10절)
2. 다른 \_\_\_\_\_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12절)
3. 직접 \_\_\_\_\_ 들었기 때문입니다. (20절)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사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니카라과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임철현/임윤실 선교사	한국(제주) 탈북자, 고려인 자녀 사역
김종현/김유경 선교사	선교사 파송 및 교회를 떠난 청년 사역(한국)
제이넵/젠기즈 사역자	터어키 현지인으로서 서머나 지역 교회 개척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감사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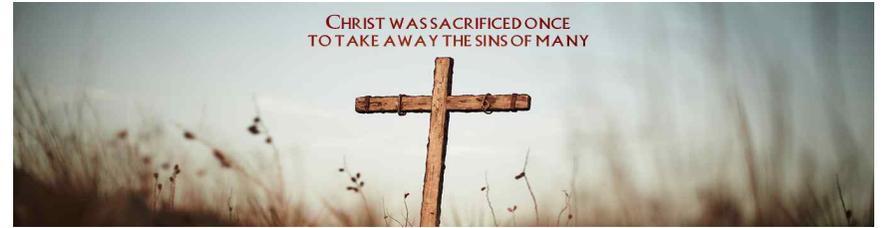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자" (예레미야 11장 4절)  
 "Let us obey our God" (Hebrews 12: 1-2)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 사도행전 4장 8-22절 ..... 설교자  
 Scripture Reading Acts 4: 8-22 신약 192 페이지 Presider
- 말씀 .....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김성민 목사  
 Message Rev. Kim
- 헌금/기도 .....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 다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 축도 .....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 담임목사 컬럼 (갑자기 더워진 날씨)

갑자기 더웠던 지난 이틀 동안 많은 변화가 생겼다. 먼저는 나무들의 변화다. 나무마다 새로운 잎을 내 놓느라 수고가 많았다. 또한 하늘이 맑아서 모든 것을 밝아 졌다. 하지만 그 보다 더 큰 변화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다니는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한 지난 3년 동안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가까운 큰 마켓에 물건을 싣는 카트(Cart)가 모자랄 정도이니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나왔는지 알 수 있다. 길마다 막힌다. 사람들 마다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서 난리다. 신문을 보니 이 지역에 나온 파킹장 세일이 이전에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주말이다. 그런데 며칠 후 부터는 또 다시 예전과 같은 비와 낮은 온도가 이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모처럼 사람들이 나와서 다니는 것을 보니 이상한 느낌이 든다. 새로운 세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이다. 그 정도로 지난 3년 동안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이제 움츠린 어깨를 펼 때가 되기도 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활기를 띠고 있기는 하지만 마음에서부터 그 두려움을 이기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활동이 필요한 것을 깨닫는다.

신앙생활도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고통 받았는가? 2-3달이면 끝일 것이라 생각한 것이 3년을 꼭 채우며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을 바꾸어 놓지 않았는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던 활발한 때가 이제 활발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본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드린 예배가 이제는 그러려니 생각하며 담담하고 미지근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지난 3년 동안의 움츠림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 까지도 움츠리게 만들었던 것 같다. 그러나 봄이 늦게 왔지만 없어진 것이 아닌 것 같이 잠깐의 멈춤이 있었지만 이제 그 열정과 뜨거움이 회복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 봄이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불어주신다. 열린 가슴에 그 숨을 불어주시면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신다. 지난 이틀 동안의 따뜻함이 우리에게 자유를 깨닫게 한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며 자유케 하신다.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외로워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랑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장 13절)라고 하신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이제는 성령 강림 주일로 가고 있다. 성령께서 초대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흔들리기 쉬운 세상에서 은혜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이다. 내 안에 움츠리고 있던 것들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꽃이 만발한 우리의 믿음생활이 되기로 소원해야 한다. 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힘이 있어 다윗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찬양을 했던 것 같은 찬양이 우리 마음에서 입으로,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긴 겨울을 끝내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가 벌써 되었다.

## 교회소식

###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여행 중에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이슬람 지역에 개척교회를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현지인 목회자들의 도움이 잘 연결

김인선 선교사: 학교사역과 사무실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임철현, 임윤실 선교사: 1월 한글학교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김종현, 김유경 선교사: 선교 동원사역 및 한국 청년사역 (교회를 떠난)

제이넵, 젠기즈 사역자: 터어키 서머나 지역 교회 개척

###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5월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씩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5. 5월 행사

어린이 주일	5월 7일(주)	
어버리 주일	5월 14일(주)	
목자 훈련	5월 14일(주)	친교 후
목장 모임	5월 21일 주 중	
성령 강림주일	5월 28일(주)	

### 6.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http://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mailto:newchurchoregon@gmail.com)